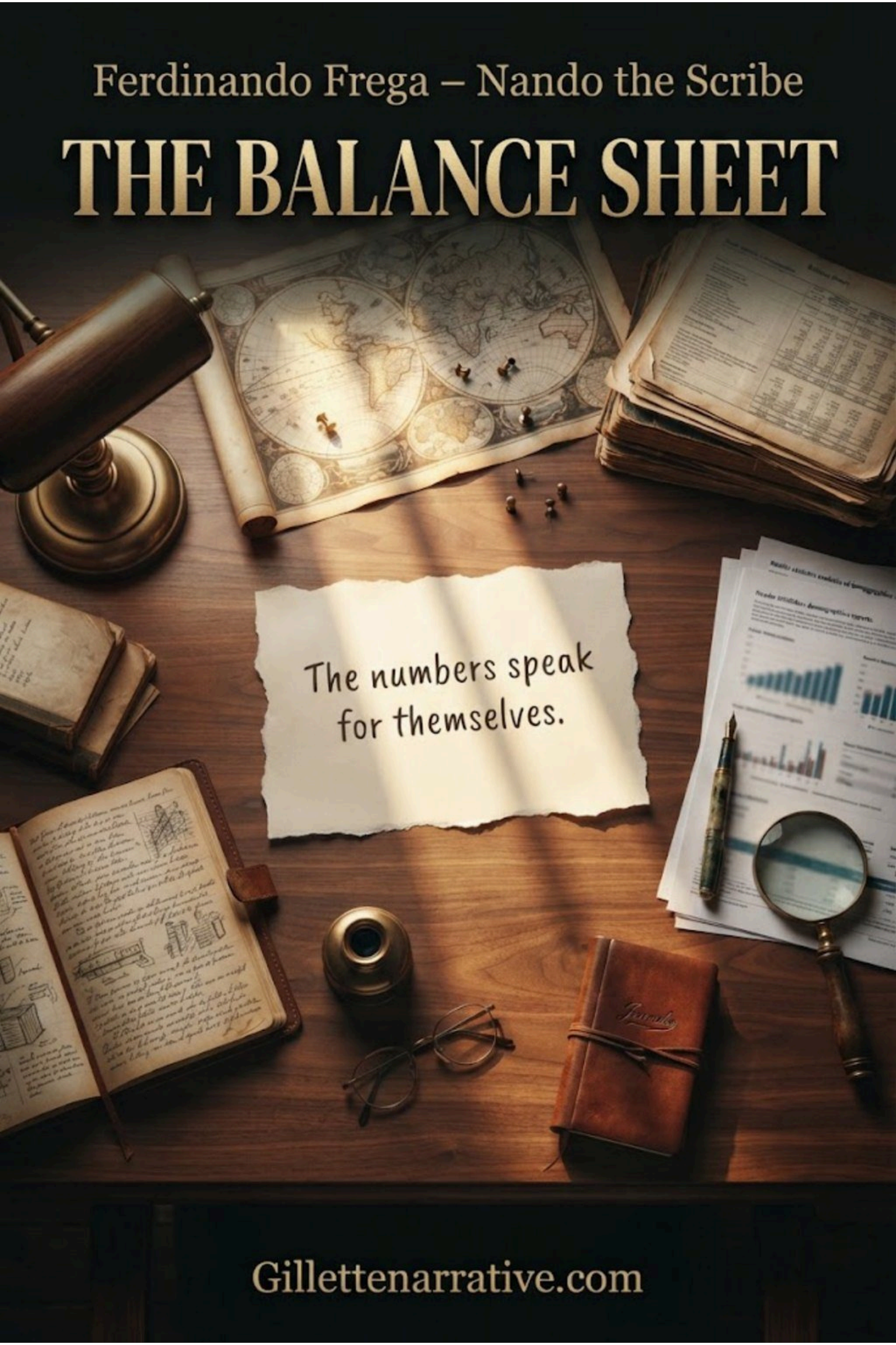
Ferdinando Frega – Nando the Scribe

THE BALANCE SHEET



Gillettenarrative.com

GILLETTE 대차대조표

가장 유명한 대차대조표는 국가의 것이다.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의 집착이다: 조명을 언제나 같은 지점에 고정해 두는 것 — 취약한 부분.

공공 부채는 언제나 폴 포지션에 머문다, 마치 영원히 살 운명을 타고난 환자처럼.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. 영원을 선고받았다.

사람들이 “우리는 곤경에 처했다”고 말할 때마다 같은 외침이 뒤따른다: 이제 모두가 기어를 바꾸고, 더 열심히 일하고,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.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다. 의무처럼 따라붙는 문장은 언제나 같다: 정신을 차려야 한다.

집단적이고 국가적인 책임의 행위처럼 들린다. 그러나 그 울림은 몇 분 만에 사라진다, 마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.

그런데도 그 말은 우리 주위에 메아리친다, 다른 누군가가 일으켰다는 무언가의 무게를 싣고서. 그동안 우리는 언제든 원할 때 채널을 돌릴 수 있는 현실 속의 구경꾼으로 남아 있다.

그다음에는 조직의 대차대조표가 있다: 기관, 협회, 기업.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, 궁극의 질문은 변하지 않는다:

우리는 잘했는가, 아니면 더 할 수 있었는가?

진정한 경영자가 손실을 날카롭고 상세하게 드러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대차대조표를 내놓는 일은 드물다. 답이 없을 때 설명은 외부 요인이 된다, 마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역풍이 범인이라도 되는 듯이.

그리고 마지막으로, 가족의 대차대조표가 있다.

그러다 어느 날, 당신은 자신의 나이를 세기 시작한다. 부고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, 나이란 한 생애 어딘가에 놓인 날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.

그때 당신 자신의 대차대조표가 도착한다.

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오직 당신 혼자 책임지는 대차대조표 — 그 투자의 수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도 오직 당신뿐이다.

심리학이나 철학으로 들어가지 않고 — 나는 의사도 교수도 아니다 — 나의 가장 최근 대차대조표를 나누고 싶다:

작가로서 나의 대차대조표

숫자가 스스로 말한다. 어떤 논평도 필요 없다.

그리고 사람들이 있다.

자연스럽게, 한 사람 또 한 사람, 광고도 캠페인도 전략도 없이 찾아오는 독자들.

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?

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.

여정이 끝나서가 아니라,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.

그리고 자연이 창조하면, 세상은 보존한다.

Ferdinando